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2호 (2015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 · 이승연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상미 · 김지연 · 조종열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 · 김혜리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 · 최영은 · 조종열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 · 송현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 · 정윤경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 · 송현주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6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 19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 · 이승연 / 41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 63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상미 · 김지연 · 조증열 / 89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 · 김혜리 / 107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 · 최영은 · 조증열 / 125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 · 송현주 / 14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 · 정윤경 / 159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 · 송현주 / 175

한국발달심리학회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노동 불안정성 증가와 중산층 붕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조윤경, 2014), 전체 취업 여성 중 기혼 여성 비율이 2013년도 기준 50.1%에 이르고 있다(한국여성정책원, 2013). 기혼 여성의 취업 시장 진출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구조에 변화를 주었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 온 자녀 돌봄의 역할을 부모 공동 양육의 형태로 변화시켰다(백진아, 2009).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과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Cappuzzo, Sheppard와 Uba(2010)는 현대사회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제한되지 않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애착이론의 발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애착이론에서 자녀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였지만(Bowlby, 1958), 최근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자녀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Newland & Coyl, 2010).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의 한 연구에서 양쪽 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만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뛰어난 사회정서적 적응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에게만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된 청소년들과 적응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l-Yagon, 2011). 또한 양쪽 부모에게 높은 애착 안정성을 보인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쪽 부모에게만 안정 애착된 아동보다 교사평정과 자기보고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유능감을 나타내었다(Diener, Isabella, & Behunin, 2008).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애착 이론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그동안 적절히 평가받지 못했던 아버지 애착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자녀 애착 형성 과정은 어머니-자녀 애착 형성 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고통을 위로함으로써 애착을 형성하는 반면, 아버지는 신체적인 놀이를 통해 자녀를 기분 좋게 흥분시킴으로써 자녀와 애착을 형성한다(Dixon, Ygman, Tronick, Adamson & Brazelton, 1982). 아버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흔히 정서적 자기조절 및 사회적 유능성이 우수하며, 문제행동이나 비행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Gottman, Katz, Hooven, 1997; 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에서 재인용). 아버지는 특히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들의 본격적 사회화가 시작되는 학령기에 아버지-자녀 애착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Cowan, Cohn, & Pearson, 1996).

최근 아버지 애착이 자녀의 정서사회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애착과 관련한 국내 발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옥정, 방희정, 2012). 국내에서 발표된 아버지 애착 연구들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이영환, 백지은, 1998; 박희경, 정계숙, 2012; 옥정, 방희정, 2012; 채영문, 2012), 아버지 애착과 대학생 자녀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관계(박은선, 2009), 아버지 애착 표상의 세대 간 전이(채진영, 2009) 등이 있다. 현재로서는

아버지 애착과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 애착이 이들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지적·사회적 성숙에 비해 정서적 성숙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서를 충동적으로 표현하게 될 위험이 높다(Thomburg, 1982). 조절되지 않는 정서 표현은 부적응을 야기하는데,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Anderson & Bushman, 2002), 청소년들의 과도한 분노억압은 내면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수균, 2007; Barlow,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즉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Bowlby(1958)는 부적응적인 분노가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버지에게 불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의 경우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수준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Konishi & Hymel, 2014)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이 분노와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가희, 2013; 김명화, 박영자, 2013)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직접적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

지-자녀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와의 신체놀이를 통해 발달하게 되며(Lamb, Pleck, Charnov, & Levine, 1985), 이를 통해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경험할 수 없었던 색다른 정서적, 인지적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 Labrell(1996)에 의하면 아버지가 주도하는 놀이는 놀잇감을 매개하지 않고 주로 신체접촉을 사용하며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때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활발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아동은 아버지와 놀이를 통해 아버지의 정서 신호를 읽고, 자신의 정서 단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반복하면서 아동은 적절한 흥분 수준에서 유쾌하게 놀이를 유지하는 법을 습득하게 된다(Parke et al., 2002). 이에 대해 Carson(1993)은 아버지-자녀 놀이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해독하고 자신의 정서를 부호화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즉 아버지 애착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지각하고 정서들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인 정서인식명확성(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yer와 Salovey(1997)은 자신의 표정이나 신체감각에 근거하여 정서를 파악하고 내적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며 복합적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을 '정서인식'이라 정의한 바 있다. 정서인식은 정서에의 주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지, 정서의 이해와 명명으로 구성되며, 정서인식명확성은 보다 특수하게,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지를 명명하는 용어이다(Salovey et al., 1995).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의 정보처

리과정에서 필수적인데,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Salovey & Mayer, 1990).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낮은 수준의 정서인식은 반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었고(Mavroveli, Petrides, Rieffe, & Bakker, 2007; Saarni, 1999), 정서인식 및 표현은 역기능적 분노표현 중 분노억압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소원석, 2013).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정서적 유능성을 측정하였을 때, 정서적 유능성은 분노표출, 분노억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분노통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진영, 고영진, 2011). 이처럼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정서인식명확성의 상위개념인 정서인식 또는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한편, Grossmann 등(2002)은 아버지의 민감하고 도전적인 신체놀이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지적 유능성을 키워준다고 보았다. 실제 실험연구에서 신체놀이 동안 아버지들은 정서적, 인지적으로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놀리기(teasing)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아버지가 제공하는 놀이의 비전형성을 통해 아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게 된다(Labrell, 1996). 청소년 대상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 애착이 어머니 애착보다 자기효능감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이복영, 2008), 아버지 애착은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신숙, 2008).

아버지 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드물다. Brackett, Rivers와 Salovey(2011)는 정서인식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간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개인이 외부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탐색해 나가도록 도와준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정서인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즉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이한우와 이미희(2013)는 대학생 연구를 통해,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도 매우 드물다. 먼저,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덜 억압하였고,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일도 더 적었다(Ausbrooks, Thomas, & Williams, 1995). 한편, 최은혜(2011)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응적인 분노표출은 감소하였지만, Ausbrooks 등(1995)의 연구와 달리 분노억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림 1에서 제시된 연구모형과 같이, 아버지 애착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각각을 매개로 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인식명확성을 증가시키고 이어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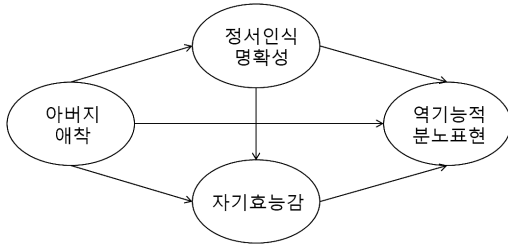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각각의 매개효과가 나타내는가?
2.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경남, 강원 지역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8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부재하여 아버지 애착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명의 자료 역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170명(44.9%), 여학생 209명(55.1%), 총 37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3.82세($SD=.69$, $n=379$)였다.

측정도구

아버지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 개

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Version;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6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을 동일 문항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다) 상에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옥정(199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 애착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가 .93,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신뢰 .90, 의사소통 .82, 소외 .75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1997)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들 중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현주와 이정운(2011)의 청소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분노표출 .78, 분노억압 .77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 분노억압 하위척도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칙도와는 다른 구조가 관찰되었다. 분노

표출 문항의 일부와 분노억압 문항의 일부가 혼재되어 하나의 새로운 요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척도의 청소년 대상 표준화 연구(이영식, 조주연, 1999)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우 행동으로 표현되는 분노만이 분노표출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고 억압된 분노의 정서도 분노표출로 인식되는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논의되었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문항의 혼재현상으로 새로운 하위요인이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출 문항들로 구성된 역기능적 분노표현 1(MA1), 분노억압 문항들로 구성된 역기능적 분노표현 2(MA2),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혼재 문항들로 구성된 역기능적 분노표현 3(MA3) 총 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MA1 .68, MA2 .60, MA3 .80, 전체문항의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훈구와 이수정(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항), 정서 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의 세 개 하위변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변인들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는 단일차원 척도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여

두 가지 하위차원(EC1, EC2)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은정과 홍주연(201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EC1 .80, EC2 .82, 전체문항 .86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해 제작한 김아영(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윤미와 이숙(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신감 .78, 자기조절효능감 .75, 과제난이도 선호 .6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0, .86, .80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2개 중학교, 경기 지역의 2개 중학교, 경남과 강원 지역 각각 1개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이 증가하므로 측정도구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편집하여 2개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은 교사 및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설문 실시 요령을 충분히 습득한 교사들에 의해 교실에서 약 15분간 실시되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전반적인 기초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M 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델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던 Kline(2005)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선 아버지 애착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하위요인과 대체로 경미한 부적 상관을($r = -.11 \sim -.24, p < .05, p < .01$),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정적 상관($r = .16 \sim .32, p < .01$)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 애착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서도 정적 상관($r = .14 \sim .36, p < .01$)이 관찰되었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아버지 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각각의 측정변수에 대한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N=379)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애착	신뢰	9-45	9-45	34.43	6.69	-.45	-.01
	의사소통	8-40	9-40	26.90	5.82	-.29	-.14
	소외	4-20	6-20	14.97	3.21	-.43	-.41
역기능적 분노표현	MA1	2-8	2-8	3.31	1.48	1.26	1.21
	MA2	2-8	2-8	3.70	1.50	.94	.56
	MA3	6-24	6-24	11.4	3.91	.63	.07
정서인식 명확성	EC1	4-20	4-20	13.84	3.31	.06	-.49
	EC2	6-30	12-30	21.42	4.00	.16	-.47
자기 효능감	자신감	6-36	8-36	23.28	5.89	.03	-.50
	자기조절 효능감	10-60	16-60	40.66	7.39	.12	-.00
	과제난이도 선호	3-18	3-18	10.99	3.16	.26	-.10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379)

	1	2	3	4	5	6	7	8	9	10	11
1. 신뢰	1										
아버지 애착	.82**	1									
3. 소외	.70**	.64**	1								
4. MA1	-.11*	-.11*	-.21**	1							
5. MA2	-.12*	-.15**	-.18**	.29**	1						
6. MA3	-.09	-.12*	-.24**	.42**	.40**	1					
7. ECI	.24**	.26**	.32**	-.07	-.18**	-.26**	1				
8. EC2	.23**	.16**	.10	.06	-.04	-.05	.53**	1			
9. 자신감	.27**	.20**	.36**	-.25**	-.33**	-.42**	.44**	.19**	1		
10. 자기조절효능감	.33**	.25**	.18**	-.04	-.05	-.08	.30**	.39**	.34**	1	
11. 과제난이도선호	.23**	.20**	.14**	-.03	-.12*	-.07	.18**	.21**	.35**	.56**	1

** $p < .01$, * $p < .05$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MA2(분노억압)와 정서인식명확성의 EC1 간에 경미한 부적 상관($r=-.18, p<.01$)이, 그리고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25 \sim -.42, p<.01$). 한편,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r=.18 \sim .44, p<.01$).

아버지 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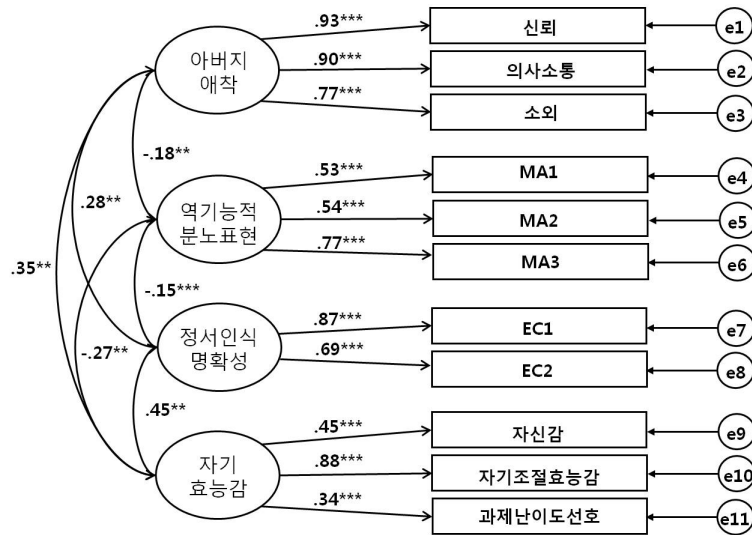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중분적합지수인 TLI(Tur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는데, TLI와 CFI의 경우 0.9 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Bentler, 1990), RMSEA의 경우 0.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08 이하면 적절한 모형, 0.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2 값이 120.996(df=38, $p<.001$), 절대적 적합도 지수를 의미하는 RMSEA가 .08(90% 신뢰구간에서 .06~.09), 상대적 적합도인 TLI와 CFI는 각각 .92, .94로 나타났고,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아버지 애착의 측정변인은 .77~.93,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측정변인들은 .53~.77, 정서인식명확성 변인들은 .69~.87,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들은 .34~.88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 $p<.001$, ** $p<.01$.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유의하였다($p < .01$). 이는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10)는 기준에 부합하므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의 검증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이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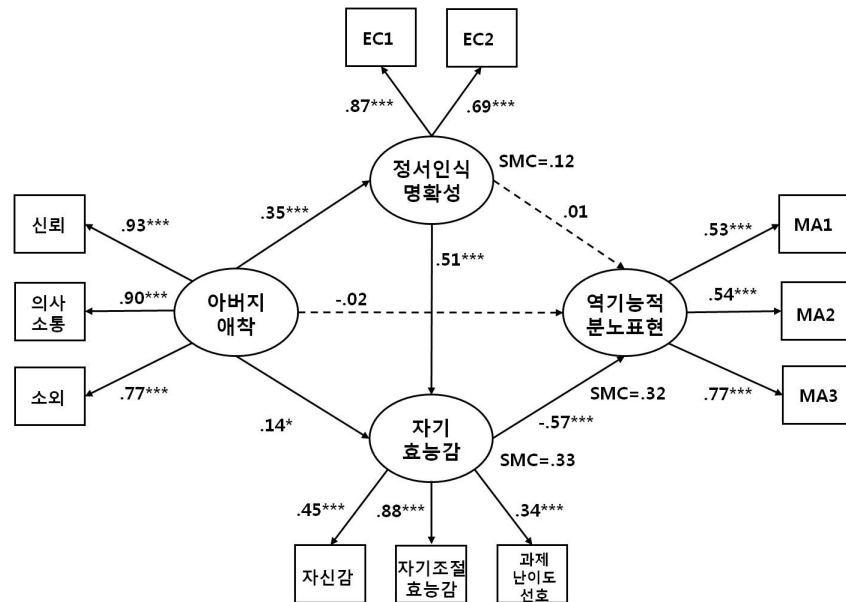
χ^2 값이 120.996($df=38$, $p < .001$), 절대적 적합도 지수를 의미하는 RMSEA가 .08(90% 신뢰 구간에서 .06~.09), 상대적 적합도인 TLI와 CFI는 각각 .92, .94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 애착에서 정서인식명확성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gamma = .35$, $p < .001$),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1$, $p > .05$).

아버지 애착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gamma = .14$, $p < .05$),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 $p < .001$, * $p < .05$.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유의수준
아버지 애착 → 역기능적 분노표현	-.01	.04	-.02	.80
아버지 애착 → 정서인식명확성	.37	.06	.35	***
정서인식명확성 → 역기능적 분노표현	.00	.05	.01	.95
아버지 애착 → 자기효능감	.18	.08	.14	*
자기효능감 → 역기능적 분노표현	-.25	.06	-.57	***
정서인식명확성 → 자기효능감	.63	.10	.51	***

*** $p < .001$, * $p < .05$

효능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beta = -.57$, $p < .001$),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 $p > .05$).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간의 경로계수가($\beta = .51$, $p < .001$)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obel(1982)의 계산공식을 사용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00$, $p < .05$).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 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을 차례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3.05$, $p < .001$).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아버지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단순매개효과와 아버지 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을 차례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준오차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변량 델타 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을 이용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 결과들과 같이 아버지 애착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부적 상관,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자기효능감

의 자신감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한편 정서인식명확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상관은 상당히 미약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EC1)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측정변인인 MA2(분노억압), MA3(혼재)와 경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MA1(분노표출)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정서를 조절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Feldman & Gross, 2001)로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 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버지 애착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다른 변인들을 매개함을 시사한다. 김명화, 박영자(2013)의 연구에서 자동적 사고가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을 완전매개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변인 간을 연결하는 다른 매개변인들의 존재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두 변인 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변인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이었다. 먼저, 아버지 애착에서 정서인식명확성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가 다양한 정서를 식별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시작되며(Mayer & Salovey, 1997), 특히, 아버지의 놀이 스타일이 자녀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arquette, 2004)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애착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아버지와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와의 놀이가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낯선 상황의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Paquette,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아버지와의 애착이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을 예측함을 보여주었던 국내 선행연구 결과(이복영, 2008; 이신숙, 2008)와도 일치한다.

한편, 자기효능감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던 모든 경로 중 가장 강력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낮아지는 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련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과 다른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신감이 낮아 자신을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정서적 흥분을 경험하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Beck(1995)의 이론은 자신감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부적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규칙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친사회성을 증진시킨다는 발견(Bandura, Caprara, Barbaranelli, Pastorelli, & Regalia, 2001)도 간접적이지만, 자기조절효능감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의 분노표현을 촉진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줄이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이 두 변인 간 관계는 비일관적일 뿐 아니라 미약하였다. 물론 상관분석 상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구조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관련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처럼 정서인식명확성으로만 제한하여 측정된 것이 아니라, 상위개념인 정서인식이나 정서적 유능성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정확히 뒷받침하는 것은 어려웠다.

한편, 두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이한우, 이미희, 2013)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자기효능감을 예측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정서를 명확히 지각하고 정서들을 변별하는 능력이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정신적 자원을 덜 할당하게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능케 한다는 연구결과(Gohm & Clore, 2000)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추정가능한데, 목적지향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성취를 달성한 경험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궁극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andura, 1995).

또한 아버지 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안정적 애착으로 형성된 정서인식명확성이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간접적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아버지 애착과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정서인식명확성, 자기효능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더불어 치료적 개입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중학생 자녀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버지와 애착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10개 중 9개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제화, 이상복(2007)의 연구와 연결지어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제화와 이상복(2007)은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주변의 다른 중요한 사람들, 즉 아버지, 형제, 또래,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였

다. 청소년기는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만남의 증가와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Larson, Kubey & Colletti, 1989)이므로,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에 대한 중재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분노표현 문제가 있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의사소통 및 신뢰감, 친밀감을 늘릴 수 있는 양육태도와 행동을 습득하여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 한다면, 이는 자녀의 정서인식능력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정서인식명확성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자기효능감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명확성 증진을 위한 개입은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둔 개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굴표정과 바디 랭귀지를 인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은 정서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최은실, 방희정, 2013; Russell, Chu, & Phillips, 2006). 정서단어 교육과 얼굴표정 인식으로 구성된 정서인식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는 김광수와 김미선(2008)의 연구는 정서인식 수준의 향상이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상황이라도 스트

레스로 덜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과제관련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다(Bandura, 1986)는 주장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 발달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자신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해본 경험, 주변인들을 통한 대리경험, 다른 사람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요인들을 증가시키는 중재 방안은 자기효능감의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대상 중재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Weymouth와 Howe(2011)는 아버지들의 경우 내면화된 심리적 메시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 후 폭력 방지 기술이 증가했던 어머니들과 달리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이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버지들의 특성을 반영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Saleh, 2012).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바쁜 일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로 강렬한 신체적 놀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Parke 등(2002)의 주장대로, 짧은 시간 동안에 적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양육기술이나 전략들이 소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연구들을 통해 소개된 아버지 대상 개입방법들로는 심리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동과제 수행 등을 통해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양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에 기반을 둔 접근(Maxwell, Scourfield., Featherstone, Holland, & Tolman, 2012), 강의식 또는 치료사가 주도하는 그룹 세션 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남성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부응하는 프로그램(Berlyn, Wise, & Soriano, 2008), 아버지 지지그룹(Berlyn et al., 2008; Huebner, Werner, Hartwig, White, & Shewa, 2008) 등이 있다.

최근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자녀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버지 애착에 주목하였고, 특히 기존의 아버지 애착 국내 연구가 주로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이나 성인초기 자녀의 진로발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여, 청소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게다가 부모 애착과 자녀의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하나의 매개변인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단편적으로 검증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정서적, 인지적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 기제를 확인했다는 점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적절한 분노표현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개입에 있어서 아버지 대상의 개

입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아버지와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척도 개정판(IPPA-R)을 사용하였는데, 해당척도는 애착의 보편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척도로 아버지 애착의 독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아버지 애착의 독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대상 자기보고식 척도는 국내외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러한 도구 개발이 심화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 애착의 독립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어머니 애착이나 또래 애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청소년기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 중 하나이며(Ferguson, San Miguel & Hartley, 2009), 남학생의 경우 부모 애착보다 또래 애착이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명화, 박영자, 2013)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의 영향을 분리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서,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남녀 청소년의 성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표집대상들로부터는 유의한 성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및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통계적 문제로 인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분노억압과 분노표출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선행연구의 비일관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타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

리해 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 평정 도구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결과 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희 (2013). 초기 청소년 부모애착 및 자아 존중감과 청소년 분노에 관한 중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15(2), 295-317.
- 김광수, 김미선 (2008).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 인식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7(2), 141-158.
- 김명화, 박영자 (2013). 부모 및 또래애착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상담*, 3(1), 33-59.
- 김아영 (1997).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통계학술대회 논문집*, 51-64.
- 김진영, 고영진 (2011). 청소년의 분노표현 양식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학교분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63-79.
-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 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 박은선 (2009).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947-965.
- 박희경, 정계숙 (2012). 유아-부모 애착과 애착 일치 여부가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2), 229-242.
-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33(1), 204-224.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소원석 (2013). 정서지능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미, 조성호 (2014).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 표현방식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29-148.
- 심은정, 홍주현 (2013).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95-212.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 정, 방희정 (2012). 아버지 애착표상, 아버지 탐색민감성, 유아 애착안정성 및 유아 발달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45-65.
- 이복영 (2008).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1(1), 89-101.
- 이신숙 (2008).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37-1049.

- 이영식, 조주연 (1999). 한국판 청소년 상태 - 특성 분노표현척도의 표준화 연구. *神經精神醫學*, 38(4), 794-804.
- 이영환, 백지은 (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5(1), 1-28.
- 이제화, 이상복 (2007).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분석: 1997년에서 2007년까지 국내외 연구 중심으로. *정서 학습장애아교육 학술발표회*, 15(2), 103-125.
- 이한우, 이미희 (2013). 대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가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181-200.
- 이훈구, 이수정 (1997). Trait meta-mood scale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조윤경 (2014).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2(1), 83- 112.
- 조윤미, 이 숙 (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641-658.
- 채영문 (2012). 유아, 아버지 배경변인과 아버지 애착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5, 83-101.
- 채진영 (2009).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표상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은실, 방희정 (2013).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정서단어와 얼굴표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7-39.
- 최은혜 (2011). 자기조절과 인지적 유연성이 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성인지 통계, 혼인 상태별 경제활동인구(2013년도).
- Al-Yagon, M. (2011). Adolescents' subtypes of attachment security with fathers and mothers and self-perceptions of socioemotional adjustment. *Psychology*, 24(4), 291-299.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Psychology*, 53(1), 2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2000).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23(2), 205-222.
- Ausbrooks, E. P., Thomas, S. P., & Williams, R. L. (1995).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optimism,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Health Values*, 19(4), 46-5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Pastorelli, C., & Regalia, C. (2001). Sociocognitive self-regulatory mechanisms

- governing trans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125-135.
- Barlow, D. H. (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y*, 55, 1245-1263.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Wiley Online Library
- Bentler, P. M. (1995).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Multivariate Software*. CA: Encino.
- Berlyn, C., Wise, S., & Soriano, G. (2008). *Engaging fathers in child and family services: Participation, perceptions and good practice*. Occasional Paper No. 22. Canberra: National Evaluation Consortium (University of NSW and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 39(5), 350-73.
- Brackett, M. A., Rivers, S. E., & Salovey, P. (2011).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personal, social, academic, and workplace succes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 88-103.
- Browne, M., & Cudeck, R.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 Sage.
-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 Cappuzzo, R. M., Sheppard, B. S., & Uba, G. (2010). Boot camp for new dads: The importance of infant-father attachment. *Young Children*, 65(3), 24-28.
- Carson, J. (1993). Parent-child physical play: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In J. Carson, V. Burks, & R. D. Parke (Eds.), *Parent-Child Play: Descriptions and Implications*. (pp.197-220).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Diener, M., Isabella, R., & Behunin, M. (2008). Attachment to mothers and fathers during middle school: Associations with child gender, grade and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7(1), 84-100.
- Dixon, S., Yogman, M., Tronick, E., Adamson, L., Als, H., & Brazelton, T. B. (1982). Early infant social interaction with parents and strang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0(1), 32-52.
- Feldman B., L., & Gross, J.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 process model of emotion representation and regula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 (Eds.), *Emo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pp.286-310). New York: Guilford Press.
- Ferguson, C. J., San Miguel, C., & Hartley, R. D. (2009). A multivariate analysis of youth violence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family, peers, depression, and media violence. *The Journal of pediatrics*, 155(6), 904-90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illsdale, NJ: Erlbaum.

- Goldman, S. L.,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2), 115-128.
- Gohm, C. L., & Clore, G.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6), 679-697.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 - Bombik, E., Kindler, H., Scheuerer - 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Hair, J., Black, W., Babin, B. Y. A., Anderson, R., & Tatham, R.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Pearson Prentice.
- Hall, R. J., Snell, A. F., & Foust, M. S. (1999). Item parceling strategies in SEM: Investigating the subtle effects of unmodeled secondary construct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3), 233-256.
- Huebner, R. A., Werner, M., Hartwig, S., White, S., & Shewa, D. (2008). Engaging father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2*(2), 87-10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ition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nishi, H., & Hymel, S. (2014).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Anger Among Adolescents. *Merrill-Palmer Quarterly, 60*(1), 53-79.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Labrell, F. (1996). Paternal play with toddlers: Recreation and crea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1*(1), 43-54.
- Lamb, M. E.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5). Paternal behavior in humans. *American Zoologist, 25*(3), 883-894.
- Larson, R., Kubey, R., & Colletti, J. (1989). Changing channels: Early adolescent media choices and shifting investments in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6), 583-599.
- Mavroveli, S., Petrides, K. V., Rieffe, C., & Bakker, F. (2007).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er-rate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63-275.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3-31). New York: Basic Books.
- Maxwell, N., Scourfield, J., Featherstone, B., Holland, S., & Tolman, R. (2012). Engaging fathers in child welfare services: A narrative review of recent research evidenc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7*(2), 160-169.
- Newland, L. A., Coyl, D. D., & Hui-Hua, C. (2010). Fathering and attachment in the USA and Taiwan: Contextual predictors and child outcom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 180(1&2), 173-191.
- Parke, R. D., McDowell, D. J., Kim, M., Killan, C., Dennis, J., Flyr, M. L., & Wild, M. N. (2002).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141-167). New Jersey & London: LEA.
- Paquette, D. (2004).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Mechanisms and Developmental Outcomes. *Human Development, 47*(4), 193-219.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A., and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35-468.
- Russell, T., Chu, A., E., & Phillips, M., L. (2006). A pilot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emotion recognition remediation in schizophrenia using the micro expression training tool.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4), 579-583.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Guilford Press.
- Saleh, M. F. (2012). Child welfare professionals' experiences in engaging fathers in service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2), 119-137.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125-154). Washington, DC: APA.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89-108). NY: Springer.
- Thornburg, H. D. (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 Brooks Cole, CA: Cole Publishing Company.
- Weymouth, L. A., & Howe, T. R. (2011). A multi-site evaluation of Parents Raising Safe Kids violence prevention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10), 1960-1967.

1차원고접수 : 2015. 04. 13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7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9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Self Efficacy

Dahye Sh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paternal attachment,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emotional clarity, and self-efficacy. Participants were 379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Gyeonggi, Gyeongnam, and Gangwon provinc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analyze self-report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self-efficacy and the combination of self-efficacy and emotional clarity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dolescents who have trouble with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caused by a low level of attachment to their father.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with fathers are also addressed.

Key words : *Father Attachment,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Emotional Clarity, Self Efficacy*